

삼성전자, K-로봇청소기 새판 짬다… ‘AI·보안’ 차별화

‘비스포크 AI스팀’ 신제품 출시
첨단기술 기반 프리미엄 수요 공략
“안심서비스 등 시장 주도권 확보”

중국 가전 기업들이 로봇청소기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2026년형 ‘비스포크 AI스팀’ 로봇청소기 신제품을 앞세워 존재감 회복에 나섰다. AI 기반 주행 기술과 보안 솔루션을 무기로 프리미엄 수요를 공략하겠다는 복안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한국 가정에 최적화된 2026년형 ‘비스포크 AI스팀’ 로봇청소기를 출시했다. 신제품은 10W(와트)의 흡입력과 AI 기반 고도화된 주행 성능, 독보적인 스팀 살균 기능에 강력한 보안 솔루션까지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성능과 기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현재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은 중국 브랜드가 주도하는 양상이다. 시장조사업체 ID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로봇청소기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브랜드는 모두 중국 기업 제품으로 로보락(19.3%), 에코백스(13.3%), 드리미(11.3%)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합산 점유율은 20% 미만



문종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개발팀장 부사장이 11일 서울 강남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2026년형 로봇청소기 ‘비스포크(Bespoke) AI스팀’ 신제품 관련 미디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에 그쳤다. 지난해 국내 업체들이 신제품을 내놓지 않은 것도 중국 기업들의 공세로 국내 브랜드 점유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문종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개발팀장 부사장은 “제품의 품질과 내구성, 소비자의 경험 측면에서 고객의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글로벌 점유율만으로 경쟁 구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따른다. 중국 업체들이 거대한 내수 시장을 기반



삼성전자의 2026년형 ‘비스포크 AI스팀’ 로봇청소기.

/차현정 기자

으로 물량을 확대해 점유율을 끌어올린 반면 국내 기업들은 프리미엄 제품 중심 전략과 보안·AI 기술 경쟁력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비스포크 AI스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안 솔루션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신제품에 자사의 보안 솔루션 ‘녹스 매트릭스’와 ‘녹스 볼트’를 새롭게 탑재했다. ‘녹스 매트릭스’는 트러스트 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스마트싱스로 연결된 기기들이 서로의 보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감지해 차단하는 기능이다. ‘녹스볼트’는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암호화 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하드웨어 보안 칩에 별도 보관해 안전하게 보호하는 솔루션이다.

문 부사장은 “비스포크 AI스팀은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스마트폰을 개발하며 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발전시킨 녹스보안 체계를 적용하고 있기에 소비자

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스팀 구매부터 설치, 제품 관리, 애프터서비스(A·S)까지 전문성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가전 구독 서비스 ‘AI구독클럽’을 통

김동명 “스텔란티스 등 완성차업체 JV 종료 계획 없어”

(LG에너지솔루션 사장)

북미 생산설비 기반 ESS 수요 흡수
ESS 중앙계약 입찰 관련 긍정적 전망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북미 전기차(EV) 시장을 겨냥해 구축한 생산 자산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에 적극 활용해 급증하는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ESS와 로봇 등 비(非)전기차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성장 축을 다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국배터리산업협회 ‘2026년 이사회·총회’에서 올해 핵심 과제로 ESS 수주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북미 EV 시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확보한 자산을 적극 활용해 빠르게 늘고 있는 ESS 수요를 흡수하려 한다”며 “수주, 개발, 생산을 함께 끌어올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회를 앞두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에서는 구미와 광양을 거점으로 배터리 팩과 컨테이너를 포함한 ESS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배터리 셀 역시 국내 소부장 생태계 확대를 통해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있

며 이를 통해 원가 경쟁력과 국산화율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과의 합작법인(JV) 운영 기조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현재로서는 스텔란티스를 포함해 추가적인 JV 종료 계획은 없다”며 “시장 상황과 사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엘앤에프와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리튬인산철(LFP) 소재 국산화와 북미 적용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김 사장은 “국내에서도 LFP 케미스트리를 생산 하려는 업체들이 늘고 있고, 대표적으로 엔앤에프가 있다”며 “북미산 배터리에 적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봇 분야로의 배터리 공급 확대도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이미 주요 로봇

업체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원통형 배터리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고에너지밀도와 고출력이 요구되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전고체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SS 중앙계약 입찰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대를 내놴다. 김 사장은 “1차 입찰 대비 원가를 상당 부분 낮췄고 국산화율도 높였다”며 “구미와 광양에서 팩과 컨테이너까지 일괄 생산하는 체계를 갖춘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중앙계약 시장을 시작으로 ESS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배터리산업협회는 9대 협회장으로 엄기전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3년간 맡아온 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난다.

/원관희 기자 wkh@

HJ중공업 1만TEU급 대형선 건조

HJ중공업은 유럽 지역 선주사와 총 3532억원 규모의 1만1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2척(옵선 2척 별도)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1만TEU급이 넘는 대형 컨테이너선이 건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해운업계가 선호하는 최신 선형을 적용한 1만1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으로, 고효율 연비 설계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상철 HJ중공업 대표는 “혁신적인 공법 개발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도조선소에서 1만TEU급이 넘는 대형 컨테이너선을 건조할 수 있게 됐다”며 “고품질 선박을 완벽히 건조해 선주사의 신뢰에 보답하고, 중대형 친환경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명성을 더욱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KAI, ‘항공기 플랫폼·K-무장’ 패키지 수출 시동

LIG넥스원·한화에어로 MOU 체결
항공무장 개발 등 수출 경쟁력 강화

KAI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진행 중인 ‘제3회 세계방산전시회’에서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각각 KF-21과 FA-50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산 항공 무장 개발·통합 및 공동마케팅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각 사는 ▲KF-21과 FA-50 공대공·공대지 항공 무장에 대한 공동 기술 검토 및 체계 통합 ▲무장 포트폴리오 다

양화 ▲공동마케팅 강화 등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도하는 장거리 공대공·공대지 유도탄 등 체계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KF-21 AESA 레이더와 유도탄 간 무장 데이터링크를 구축해 글로벌 톱 티어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KAI와 국내 대표 장비·무장 전문 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KF-21과 FA-50 등 국산 항공기 플랫폼과 K-무장의 ‘패키지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마

케팅을 통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항공기 플랫폼뿐 아니라 장비·무장을 통합한 ‘패키지형’ 제안을 선호하는 만큼 이번 협력은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차재병 KAI 대표는 “KF-21과 FA-50은 국내 다양한 협력사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노력해 만들어진 K-방산 ‘팀 코리아’의 상징”이라며 “최근 해외 고객들이 항공기 플랫폼은 물론 운영체계 전반을 한국산 패키지로 요구하고 있



KAI 차재병 대표이사(왼쪽)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대표이사가 현지시간 9일 국산 항공 무장 개발 통합 및 수출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서(MOU)에 서명했다. /KAI

어, 국내 방산업체들과의 공동마케팅이 K-방산 수출 확대에 주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두산에너지빌리티 남부발전 가스터빈 공급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한국남부발전과 380MW급 가스터빈 3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한국남부발전이 추진하는 발전소 2곳에 가스터빈 3기를 공급한다. 경상남도 하동군에 1000MW급으로 조성되는 하동복합발전소에 가스터빈 2기를, 경기도 고양시에 500MW급으로 들어서는 고양창릉열병합발전소에 가스터빈 1기를 각각 납품한다. 발전기와 부속설비도 함께 공급한다.

두 발전소는 모두 2029년 1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추진된다. /유혜은 기자